사 설

'주유소 가기 겁난다' 방안 마련해야

국제유가 7년만에 최고치 기록
고공행진에 에너지발 물가 '비상'

최근들어 원자재 가격과 곡물값 등이 급등하면서 '밥상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에너지, 공공요금마저 잇따라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 가격이 오름세를 타고 있고, 전기·도시가스 요금 등 에너지 가격도 상승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4일 기준 전북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88원으로 한달 전(1,628원)보다 60원이 더 올랐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 등으로 경기침체기였던 작년 11월 첫째주 리터당 1,307원과 비교하면 11개월 사이 무려3,21원이나 급등했다. 이후 11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현재 1,628원을 보이고 있다. 앞선 지난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북 휘발유 가격 평균은 1,636원(전국 1,652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1,311원에서 1년 가까이 꾸준히 증가해 1,700원을 눈앞에 뒀다. 경유 판매가격 역시 1,431원(전국 1,447원)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태다.

국내 가격이 최근 상승 전환한 것은 국제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문제다. 통상적으로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3주 정도가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제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제 유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 또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앞당기는 뇌관인 액화천연가스(LNG) 가격도 허리케인 여파와 겨울철 수요 증가 등을 앞두고 고공행진 중이다. LPG 가격은 전북평균 964원(전국 981원)으로 지난해 5월(690원대)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LPG는 가정 난방용이나 식당 등 영세업종, 택시 연료 등에 많이 쓰인다.

정부가 오는 11월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에너지발 물가 줄인상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택배 등 운송업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들의 부담을 크게 가중되고 있다. 이마저도 못 받는 택배업자들은 택배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름값 상승은 회사 운영 및 가계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제 유가의 고공 행진에 기름 값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유류세를 인하해 소비 진작과 서민 경제 안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유류세는 유가가 급등했던 지난 2000년, 2008년, 2018~2019년 인하됐다.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 및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쓸 수 있는 정책 중 유류세 인하가 지금 상황에서 적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짙어지는 와중에 물가를 내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현장실습생 사망, 현장실습제도 방안 마련하라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 정부에 근본대책 촉구
전북교육청에 사업체 현황 전수조사 요구

지난 6일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떼다 바다에 빠져 숨진 여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A군의 사고와 관련, 비슷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주문이 국회 국정감사서 나왔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은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에게 A군의 산재사망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사고 당시 A군은 2인1조 원칙도, 안전관리자도 없는 가운데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작업 현장에는 기업현장교사도 없이 실습 표준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잠수 작업지시를 받았고 사업주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에는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의 경우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 놓았다. 또, 제166조의2에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조항에서 사업주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현장실습생을 산업안전보건 위해요소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해 놓았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근로기준법 65조(미성년자 위험 사업 사용 금지) 등 관련법 위반이 의심된다"면서 법 위반 여부 가능성을 제기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도 "'현장 실습 기업선정 기준'에는 근로기준법 제65조에 의거해 사용금지 기업으로 '잠수 업무'가 명백히 표시돼 있었으나, 학교에서는 적절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고 위험한 잠수작업을 하면서도 '2인 1조'가 아니라 학생 혼자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다"고 했다.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에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근본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전북교육청에는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체가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사실이 있는지, 현장실습 사업체들에 대한 지도·점검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따져물었다. 이들은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 여수의 한 요트관광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학생이 사망한 사건은 정부와 교육부 및 교육청의 허술한 점검 등에서 비롯됐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현장실습 폐지, 전북교육청의 현장실습 사업체 현황 즉각 전수조사 실시, 청와대와 고용노동부의 제대로 된 청년 일자리 정책 수립 등이 이뤄질 때까지 전국의 청소년노동인권단체들과 연대해 투쟁하겠다고 했다. 이름은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진행되지만, 현장실습은 여전히 조기취업의 통로로만 활용되고 있고, 선도기업의 기준은 유명무실해진 채 해마다 규제가 완화되자 5인 미만의 사업체까지 선도기업으로 선정돼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을 열악한 일자리로 내몰았다는 것이다. 전북도교육청 역시 이와 같은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여수에서 발생한 비극이 전북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월요아침

전북 예술계의 새로운 희망

전주문화재단 '탄소예술 특별 기획전'을 보고

김 익 두 사단법인 민족문화연구소장

탄소섬유가 처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약 100년 전 토마스 에디슨이 대나무 섬유를 탄화하여 전구의 필라멘트로 사용한 때이고, 이것이 공업적으로 제조되기 시작한 것은 1959년, 한국에서는 1990년 태광산업이 처음으로 공업적 생산에 성공했다 한다.

최근에 들어, 전라북도는 '탄소산업'을 전라북도의 주요 핵심 산업으로 육성시키고자 하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최근 지난 10월 5일부터 연말까지 전주문화재단(대표 백옥선)이 전주 팔복동 '팔복예술공장'에서 전시하는 '2021 탄소예술 특별 기획전, 예술과 매체: 영감의 시작'이라는 주제의 미술 전시회는 몇 가지 점에서 우리의 주의를 끈다.

'탄소산업'이 무엇인지를 우리 같은 문외한은 잘 모르지만, 어떤 지역이나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이 그 지역의 예술가들과 만나는 지점이라는 점에서, 이번 전시회는 특히 전북 도민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특별전은 전북대 링크플러스 사업단(단장 고영호)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원장 방윤혁), 전주문화재단 등 3개 기관의 공동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한 지역의 문화예술이 발전하는 그 배후에는 반드시 그 지역의 예술을 후원하는 후원자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가 아마도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주도한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일 것이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이러한 후원자의 주도권은 산업화를 주도한 산업체 쪽으로 넘어오게 되었다.

오늘날 산업화 이후 우리나라 예술 후원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마도 삼성그룹일 것이다.

최근에 예술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이 이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 이것은 산업화 이후, 그리고 최근 들어 정보화 이후, 예술과 산업의 깊은 상호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전주문화재단이 주관해서 전시하고 있는 '2021 탄소예술 특별 기획전'은 우리에게 상당한 암시와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특히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될 것이다.

첫째, 예로부터 막강한 농경사회 재력을 토대로 해서 전국 최고의 예도(藝道)였던 전라북도가, 이제는 산학지예(産學地藝) 곧 산업과 학술과 지자체와 예술가들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예술적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이러한 방향에서, 전라북도는 '예술특별세 제도'를 신설해서 이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요 산업체들이 내고 있는 세금의 일정 부분을 전라북도 예술가들의 예술 활동에 사용되도록 하여, 전북 예술을 다시 한 번 재활성화 해야 한다.

셋째, 전라북도의 주요 기업체들은 반드시 전라북도의 예술가/예술단체를 지원하도록 하는 '산예(産藝) 특별조례' 같은 것을 만들어, 이의 실시를 통해 전북 예술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예술지원금은 그 기업체의 세금감면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니, 서로 좋은 방향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방향에서 본다면, 이번 특별전은 우리 전북예술의 미래 비전을 찾게 해주는 매우 희망적인 단초를 제공해준 것이다.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해서, 이 전시회가 앞으로는 이 단계에 머물지 말고 미술·음악·문학·연극·무용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전북 탄소예술 축제'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이런 방향은 전북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도와 시와 해당 산업체와 연구기관들이 깊이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온누리

김만배

'화천대유' 말따라 성공했지만
겸손한 마음 가지지 못해…

김만배(56) 씨는 내가 직접 알던 사람 중 가장 돈을 많이 번 이다.

요즘 연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화천대유' 대주주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지난 6년간 무려 4천억 원을 챙겼다고 한다.

김만배 씨를 처음 본 건 1992년 초 일간스포츠 편집국에서였다. 당시 나는 체육부 취재기자였고 김 씨는 갓 입사한 편집 전문기자였다. 난 30대 후반, 그는 20대 후반이였다. 나이 차나 회사 경력 차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그에게 반말을 했다. "만배야. 넌 이름이 그게 뭐냐? 차라리 억배가 낫다야!" 입사 초부터 그의 이름이 농담거리였다.

그는 편집국 기자 약 100명 중 가장 막내였지만 또한 가장 활기찬 사람이었다. 키는 167㎝ 정도로 작은 편이었지만 자세가 반듯했고 가슴과 어깨는 언제나 펴고 다녔다. 요즘 TV뉴스에 나오는 금테 안경과 달리 당시엔 검은색 굵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다. 걸음이 빨랐고 태도는 분명했다. 대화시 상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입을 확실하게 벌려 비교적 높은 톤으로 또렷이 발음했다. 시선이 반듯하고 치열은 가지런했다.

이렇게 남의 외모를 자세히 쓰는 건 혹시라도 백만장자의 상이 여기 관련 있을까 해서지만 난 관상학에 문외라 잘 모르겠다. 다만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건 그의 태도다. 김만배 씨는 초년병 시절부터 주눅 드는 법이 없었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 업무적 충돌이 벌어지는 편집국 안에서 그는 '막내'임에도 거의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켰다. 다만 그는 '하늘 같은' 선배들을 결코 화나게 하진 않았다. 위태로운 순간에도 임기응변과 유머 등을 활용해 상대를 무마시키곤 했다. 이같은 친화력으로 법조계·정계에 광범위한 인맥을 구축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형 사고로 결국 끝이 좋을 것 같진 않다.

김만배 씨는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84학번) 출신답게 그가 설립한 개발회사 이름을 '화천대유'(火天大有)라 지었다. ≪주역≫에서 나온 말로 '화천'은 하늘(=天)의 불(=火), 즉 '태양'을 의미하고 '대유'는 크게(=大) 이룬다, 또는 얻는다(=有)는 뜻이란다. 김만배 씨 바램대로 그는 불처럼 일어나 벼락부자가 됐다. 그러나 그가 잊은 게 있다. 바로 ≪주역≫의 '겸'(謙)이다. 겸은 겸손이니 "그 이웃과 함께 하는 것"이다. ≪주역≫에서도 '대유'괘 바로 뒤에 '겸'괘를 둠으로써 지나친 부욕(富慾)을 경계했다. 매사 과유불급이다. /임용진(논설고문)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THE SAEJEONBUK SHINMUN
구독신청 063) 230-5712

전광판 광고문의
010-3654-5030
063)230-5714

전북의 중심을 잇는,
새전북신문 LED전광판광고!

Full Color LED 고화질의 광고영상으로 시각적 주목도가 높아
효율적인 브랜드의 이미지 구축이 가능합니다.

· 위치 :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452-8 재중빌딩
· 상영시간 : 07:00~21:30
· 규격/소재 : 10,560mm X 6,336mm
· 표출횟수 : 1일 100회 이상